

## 발제: Sparrow and Flenady. “Bullshit universities: the future of automated education”<sup>1</sup>

Chungin “Roy” Lee stepped onto Columbia University’s campus this past fall and, by his own admission, proceeded to use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 to cheat on nearly every assignment. [...] When he started at Columbia as a sophomore this past September, he didn’t worry much about academics or his GPA. “Most assignments in college are not relevant,” he told me. “They’re hackable by AI, and I just had no interest in doing them.” While other new students fretted over the university’s rigorous core curriculum, described by the school as “intellectually expansive” and “personally transformative,” Lee used AI to breeze through with minimal effort. When I asked him why he had gone through so much trouble to get to an Ivy League university only to off-load all of the learning to a robot, he said, “It’s the best place to meet your co-founder and your wife.”

James D. Walsh. “Everyone Is Cheating Their Way Through College”  
*New York Magazine* (May 7, 2025)

### 1 도입

고등교육에서 생성형 AI가 교육적 도움을 줄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은 틀렸다.

### 2 AI 교육자의 멋진 신세계

ChatGPT가 본격적으로 대두된 이래 생성형 AI는 교육적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리라는 전망을 낳았다: 수업 계획 생성 역할, 채점 보조 “조교” 역할, 개별화된 튜터 역할 등등. ChatGPT가 대부분의 학부생들보다 더 훌륭한 에세이를 쓸 수 있다는 보고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학생들보다 AI가 더 역량이 떨어지는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과업은 이제 희박하다. 기계가 쓴 것을 기계가 채점하는 것이 곧 대학 교육인 세상이 자칫하면 금방 도래할지도 모른다.

1 Sparrow, R., Flenady, G. “Bullshit universities: the future of automated education.” *AI & Society* (02 April 2025). <https://doi.org/10.1007/s00146-025-02340-8>

### 3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인간이 하던 일을 기계화하는 것의 첫 단계는 그 업무를 보다 규격화함으로써 개별적 판단과 능력 발휘의 여지를 줄이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수 십 년 간 정부와 대학에서 교육 업무에 관해 진행한 바는 정확히 이 조건에 부합한다. 교육은 보다 표준화, 규격화되었으며, 평가 절차 역시 더욱 반복적, 기계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수업 평가의 강조, E-러닝의 부상 역시 이런 추세에 부합한다.

### 4 컴퓨터가 여전히 못하는 것

대학에서 AI 사용에 저항해야 할 근본적인 이유는 생성형 AI가 내놓는 결과물이 “참 혹은 실제로 세상이 어떤지에 대해 아랑곳하지 않는” 발화, 즉 해리 프랭크퍼트가 정의한 바 “Bullshit”이라는 점이다.<sup>2</sup>

1. 생성형 AI는 사용자의 특정한 반응(“그렇구나!”)을 끌어내는데 설계되어 있지, 참인 것을 말하게끔 설계되지 않았다. (생성형 AI가 항상 거짓말을 한다는 얘기가 아님을 유의하라.)
2. 왜 다른 사람이 하는 말, 즉 증언을 신뢰할만한가? 왜냐면 누군가에게 말을 하는 것은 곧 책임을 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기계가 도덕적 주체(moral agent)가 될 수 없다는 점은 널리 받아들여지는 시각이며, 곧 기계는 책임을 질 수 없는 듯 하다. 이렇듯 책임을 질 수 없는 기계가 내놓은 언어적 산출물이 곧 “유의미한” 말이 될 수 있는가

3

### 5 사회적 맥락에서의 컴퓨터

만약 교육 현장에서 AI의 활용이 “만약-사람이-말했더라면-유의미했을-문자열을 제공해주는 원천”으로 한정될 수 있다면 AI는 교육자의 훌륭한 보조 도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동화의 역사를 보면 이는 순진한 생각이다.

2 해리 프랭크퍼트. 《개소리에 대하여》(이윤 옮김). 필로소픽

3 (발제자 註) Cf. 앵무새

1. **자동화 편향:** 컴퓨터 사용자는 컴퓨터가 내놓는 결과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경향성이 있으며, 곧 AI가 채점을 해주는 상황에서 사람이 이를 또 점검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순진한 생각이다.
2. AI의 활용이 곧 업무량을 줄여줄 것이라는 시각 또한 순진한 시각이다. (예. Bb 운영, 웹사이트 운영 ...)
3. “기계가 (언젠가는) 사람 선생님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말과 “AI는 어디까지나 사람 교육자를 보조하는 역할에 머무를 것이다”라는 말 사이의 근본적인 모순을 직면할 필요가 있다.

## 6 왜 교육은 자동화에 쉽게 넘어가기 힘든가?

1. 자전거를 탈 줄 아는 것은 “노하우”이며, 이걸 사람을 보고 따라하며 배우는 것이다. 이런 교육에서 AI의 역할은 제한된다. 물론 교육 동영상 생성해 줄 수도 있고, 피드백을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은 결국 AI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글쓰기는 그 자체로 “우리의 생각을 발견해나가는 방안”이며, 곧 프롬프트 작성만 하는 학생은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인지, 즉 AI가 자신의 생각을 정확히 표현하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될 지도 모른다.
2. 교육이 “콘텐츠의 전달”로 전환된 것은 지난 세대 교육 현장에서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였다. AI는 이런 “교육 콘텐츠”의 생성에 있어서는 흠잡을 것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육자의 역할은 스스로 ‘모범’이 됨으로써, 왜 그 교육 내용이 중요한 것인지를 체현하는 것이다.
3. 고등 교육의 주된 특징 가운데 하나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사회화를 통해 스스로의 믿음에 대한 도전을 받고, 스스로에 대해 성찰하는 것이다. AI에 대한 전적인 의존은 학생들로부터 이런 사회적 자본을 앗아갈 것이다.

## 7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

- 책도 한 때는 논란이 있는 에듀테크 아니었는가? ← AI와 책의 결정적 차이는 후자의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글쓴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책의 내용은 “증언”이 될 수 있는 반면, AI 디자이너는 AI 산출물에 책임을 질 수도, 지고자 하지도 않는다.
- AI는 글로벌 교육 불균형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기회 아닌가? ← 이는 분명 사실이나, 어쨌든 기존의 교육을 누릴 수 있었던 계층에게 주어지는 교육의 질 저하 또한 간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더욱이 인터넷 보급 같은 것이 반드시 교육비의 저하를 가져오지 않았던 것처럼, 기술에 기대어 교육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는 것 또한 순진한 시각일 수 있다.
- 학생들이 취직 후에는 어차피 AI를 써야 한다. ← 그렇다고 전통적인 대학에서 가르치는 핵심 역량의 필요성이 없어지는 않을 것 같다. AI를 가르치는 것은 비교하자면 도서관 이용 교육 같은 특수한 학습 역량 개발 교육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 기존의 대학 교육이 그렇게 훌륭했던가? 현실적으로 대학 교육은 AI로 대체가능한 반복 훈련이 된지 오래다. ← “교육의 미래에 대한 비판주의자들은 바로 그렇기에 AI에 관해 낙관주의자이겠지만, 우리 AI 대신 교육에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룩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낙관주의자가 되고자 한다.”

## 8 Back to the Future

AI가 교육에 관해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다면 AI의 산출물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대학에서 학생들이 익혀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AI에 대한 열광 속에 이런 기회는 가려지는 듯 하다. “교수자로서 AI에 의지하는 것은 곧 모든 교수자의, 그리고 학생들에게 전달하고자 했던 확립된 지식 체계의 권위를 무너뜨릴 것이다.” 단적으로, AI 투자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당 교수자 수를 늘리는 것이어야 한다.